



8면

부안 크루즈 입학 시계 '초읽기'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음 7월 25일) 제357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도,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 9조6000억... 역대 최대

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 3년 연속 9조원대 확보 '청신호' 새만금사업 정상 추진 가능 예산 확보... 개발 사업 가속화 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성장 동력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 9조6000억원을 확보하며, 정부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3년 연속 9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주요 SOC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전북자치도의 끊임없는 노력과 체계적인 확보 활동이 빛을 발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기재부 심의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휘부가 직접 나서 여야 정치인 및 부처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김관영 지사와 중앙부처를 방문 활동을 했던 도 공무원에 따르면 김지사는 중앙부처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가며 반영을 요청 할만큼 간절함을 갖고 대응해왔다고 한다.

정부의 SOC 예산 감액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주요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균형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무주 살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총사업비 849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지역 간 이동 편의성 증진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김제-삼례, 총사업비 3,372억원) 실시설계비 24억원이 반영되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및 익산-평택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총사업비 480억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호남권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익산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송객 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계획이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 6,660억원을 확보한 것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632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4,19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1,382억원) 등 핵심 SOC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이차전지, 탄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반 구축 사업과 R&D 사업 신규 예산을 다수 확보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총사업비 1,000억원), △미래 방사선 감점기술 고도화(총사업비 494억원), 극한 환경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총사업비 300억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총사업비 269억원) 등 굵직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전북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곳으로 탈바꿈하는데 한걸음을 내딛을 전망이다.

또한, 울 초 공묘를 통해 확보한 전주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총사업비 2,843억원) 예산도 2025년 예산에 반영돼 2027년까지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스마트그린 산단 산단 및 밸류체인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총사업비 1,877억원), 재해 예방 사업(총사업비 3,712억원)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확보하여 도민들을 위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총사업비 338억원)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단계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만금 SOC 사업을 비롯하여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정지권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자치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 교육감 "딥페이크 대응방안 마련하라"

SNS에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합성 유포 급증 따라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피해 현황 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서 내일부터 이틀간 도내 교장 등 2500여명 대상 집중교육 실시

서거석 교육감은 27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사건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본청 민주시민교육과는 △SNS

에 유포 중인 도내 피해 현황 조사·적극 대응 △학생 딥페이크 예방·신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 △청소년 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QQSZWdtkuxA) 제작·배포 △사이버폭력 예방(딥페이크) 교장, 교감, 생활교육 담당 교사 연수 △경찰청 유관 부서 협의회 개최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29~30일 이틀 동안 도

내 교장, 교감, 교사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이해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 발전의 희망 미래인재 키운다

전북자치도, '하우와우 미래캠프' 출범

첨단·바이오·ICT컬처 등 3개 신산업 분과 멘토 45명
전북대 등 도내 대학 3학년 이상 학생 멘티 100명 손잡아

전북의 우수 인재 100명과 이들을 도울 멘토 4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프로젝트인 '하우와우 미래캠프' 발대식을 27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개최하고 사업 개시를 알렸다.

이날 멘토와 멘티는 그룹별로 멘토-멘티 결연식을 맺고 연말까지 멘티 역량 개발, 기업 현장 탐방, 리더스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멘토-멘티 그룹은 전북의 미래 동력인 첨단·에너지·모빌리티, 바이오·농생명, ICT컬처·창업 등 3가지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멘토는 △첨단·에너지·모빌리티 분과 14명 △바이오·농생명 분과 16명 △ICT컬처·창업 분과 15명으로 45명의 전북 도내외 출향 기업 대표,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멘티는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등 도내 3학년 이상 대학생

들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하우와우 미래캠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산·학 협력 인재 육성사업으로, 기업과 학계 선배들의 노하우를 도내 대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프는 기수제로 운영되며 제1기 공식행사는 연말에 종료되지만 한번 결연을 맺은 멘토-멘티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의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흐름에 맞춰 분과는 기수별로 달리해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추후 성과보고회와 우수 활동자 평가를 통해 기업 인턴십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어렵게 모신 멘토분들의 귀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 멘티들이 잘 받아들여 함께 내일을 그리길 소원한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희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 전북이 진짜 특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영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28회 무주방딴분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백로 15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백로 15

문의: 0631324-2440